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화와 문명을 창조했으며 인류문명은 오늘의 발전한 문명사회를 이루었다.

종교계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본향인 흙으로 가고 하느님께서 부여한 영은 다시 하느님 곁으로 간다고 믿으며 영이 살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천국이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생각하는 동물이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생각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동물과 같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생각하는 념(念)은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장소를 이동하며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미국을 생각하면 영은 미국에 가 있으며 영국을 생각하면 영은 영국에 가서 생각하게 한다.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가 시작됐다. 용(龍)은 인간에게 변화의 도움을 주는 상징적인 동물이며 임금님이 거주하는 궁궐은 용의 장식을 많이 한다. 따라서 올해는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해인데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 국민이 바람직한 생각으로 개인 생활이나 국가 발전에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도 한번 질살아 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새마을 운동 정신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1차 산업인 농업에서 2차 산업인 공업으로 발전했고 오늘날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위대한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생각의 역사며 생각은 무엇인가를 남기게 한다. 인간이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다 갔느냐에 따라 결과물을 남기고 간다.

필자는 교직에서 퇴직해 언론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살며 생각 한 글을 칼럼으로 써서 신문에 보도했고 보도된 칼럼을 모아 칼럼집을 만들었는데 2023년에 쓴 칼럼을 모아 11번째 '살며 생각하며' 칼럼집이 출판돼 친지들에게 선을 보였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세종대왕처럼 지도자 정신을 품고, 이순신 장군처럼 애국심을 품자는 뜻이기도 하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생각하게 하며 그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해야 하며, 말이 씨가 되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한 해의 목표가 부자와 행운의 복이라면 항상 부자가 되는 긍정적 생각을 해야 하고 행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행운의 복이

성공을 기다려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사람의 설계도를 배워야 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그 사람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성공을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한다.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입어 혼자 태어났지만, 어려서는 부모가 곁에서 도와주었고 성장하면서 더불어 사는 이웃의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다. 이웃이란 형제자매며 이웃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학연으로 맺어진 선후배 친구와 직업으로 일하며 맺어진 이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웃과 멀어지면 고독하고 고독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 종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웃이 많고 친구도 많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돼야 한다. 좋은 이웃과 친구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주면서 사는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신이 나를 돋는다는 종교를 갖고 있으며 믿음의 신과 함께 사는 삶은 고독하지 않으며 믿음의 신은 나를 도와 성공의 길로 함께 해주신다.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한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운 부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살며 생각하며'가 됐으면 한다.

독자기고

AI 농부시대, K-농업의 바람이 분다

한진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복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AI 농업이 직면한 몇 가지 과제들이 이 분야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AI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분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 수집·저장에 따른 보안문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 인프라의 미비와 농업인들의 교육 및 정보 부족이다. 특히 작은 농가나 지역적으로 약화된 지역에서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또 AI 농업 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 지원, 농가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AI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은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로봇 기술과 드론을 통한 자동화로 작업의 효율성과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토양·작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물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

농업 분야에서도 K-농업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장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이가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사장 기백관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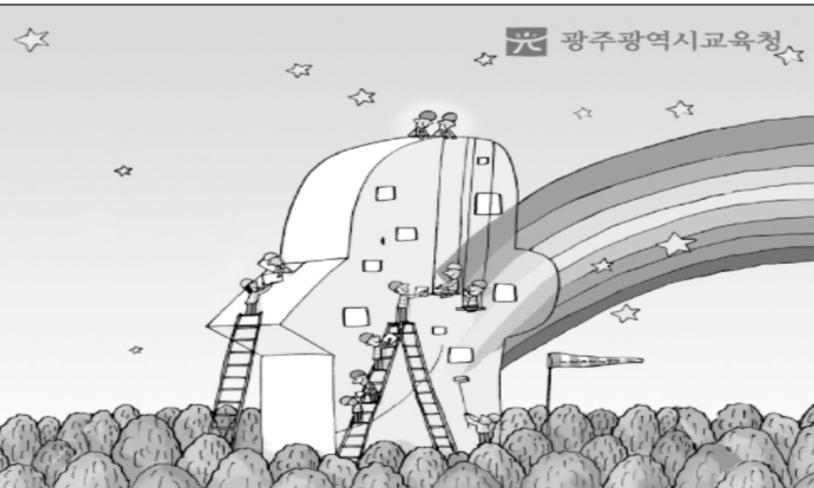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k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GREENFIBROOMEYETM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그린
알로에